

# 구둔교 소하천 석축공사 타당성 논란

## 일부 주민 “돌산 깎아서 석축 쌓는 건 예산낭비” ... 고성군산림조합 “타당성 충분”

고성군 산림조합이 죽왕면 구성리 소재 구둔교 상류 소하천에서 산림유역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성군 산림조합에 따르면 구둔교 인근 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소하천 인근의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지난 5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도비 1억8천만원을 들여 30m 규모의 석축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 구간에 속한 산림이 대부분 바위와 돌 등으로 형성된 ‘돌산’ 이어서 굳이 석축을 쌓지 않아도 무너질 가능성이

적다는 점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 A씨는 “사업 추진 지역의 산이 돌산이라서 무너질 염려가 없는데도 굳이 돌산을 깎아서 석축을 쌓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두 고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산림조합 관계자는 “인근 밭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산림유역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강원도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아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며, 인근 산림을 보호하고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산림조합이 죽왕면 구성리 구둔교 상류 소하천에서 진행 중인 석축공사가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현장 모습. 우측으로 돌산을 깎은 흔적이 보인다.



지난달 28일 죽왕면 소재 한소리음악실에서 열린 소리로 마음을 전하는 하모니 노래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

##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즐거워요”

### 시각장애인연합회 ‘소리로 마음을 전하는 하모니 노래교실’ 개최

시각장애인연합회 고성군지회(지회장 오매자) 자립지원센터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죽왕면 소재 한소리음악실에서 ‘소리로 마음을 전하는 하모니 노래교실’을 개최했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송정부)의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관내 재가 시각장애인들에게

기초재활교육과 건강 취미교실을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간성읍 소재 흥해라 지역아동센터 이경미 센터장이 나와 시각장애우들에게 한음절씩 노래를 따라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노래를 가르쳤으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피아노반주에 맞춰 부르도록 지도했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해 가장 적합한 재활복지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 복지기관이나 시설 또는 교육기관과 연계해 재가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적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 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 박승근 기자

### 4만명의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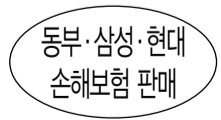


# 삼성생명 컨설턴트

삼성생명 CEO는 1명이 아닙니다  
삼성생명에는 금융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4만명의 CEO가 있습니다  
당신도 4만 삼성생명 CEO의 일원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 모집 요강**
- 지원자격 : 만 20세 이상의 남녀
  - 지 역 : 고성군
  - 선발절차 : 직무설명회 > 면접 > 교육 > 등록

삼성고성보험대리점  
☎682-4480



#### 입사상담

- ◇ 김양희 010-3382-4011
- ◇ 김지윤 010-4311-4985
- ◇ 문순선 010-4769-2868
- ◇ 원정숙 010-9243-2575
- ◇ 유수현 010-7169-6594
- ◇ 유은미 011-376-1752
- ◇ 이순성 010-4654-5659
- ◇ 이춘옥 010-8798-4330
- ◇ 정웅실 010-7681-4309
- ◇ 정춘자 011-747-6123
- ◇ 허금녀 016-341-3762